또래압력, 부모감독과 음주기대 및 청소년 음주행동의 변화추이
-청주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Study on Peer Pressure, Parental Supervision, Alcohol Expectancy and Adolescents' Drinking Behaviors of 2001 & 2006
-Focusing on the High School Students of Cheong Ju-

류나미* · 윤혜미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강사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Ryu na-mi · Yoon Hyemee
Dept. of child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relationships among peer pressure, parental supervision, alcohol expectancy and adolescent drinking behaviors between year 2001 and 2006. Three hundred high school students were given questionnaires each year on their drinking behavi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first, a adolescent drinking and the amount drinking has increased during the years. adolescent drinker ratio as adolescent drinkers were 91.3% in 2006 compared to 75.9% in 2001. The average drinking amounts were 40.82 units in 2006 and 24.9 units in 2001. Second, differences were found in adolescent drinking behaviors such as the amount of alcohol consumption, drinking frequency, & problem drinker ratio by gender, and grade. Male students over female students. Third, peer pressure, parental supervision, alcohol expectancy showed significant impacts on adolescent drinking behaviors through 2001 and 2006. Students who lack parental supervision with much higher drinking-related peer pressure along with a higher level of positive alcohol expectancy were observed to be heavy drinkers and problem drinkers. Especially, students who showed belief in alcohol's tension-relieving function and sociability function tended to over-drink, drink more frequently and as a result, experienced more drinking problems. Intervention strateg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Peer Pressure, Parental Supervision, Alcohol Expectancy, Adolescents' Drinking Behaviors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발달과정상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로서 신체적으로 새로운 변화와 발달을 체험하고 하나의 고유한 인간으로서의 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하여 혼란과 방황을 경험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어른이 되고자하는 갈망에서 청소년에게 금기시되는 술과 담배 등을 몰래 시험해 보기도 한다. 기분변화가 심하고 우울반응이 많으며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 갈등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로 담배나 알콜의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 최근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점차 더 광범위하게, 그리고 연령이 더 낮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흔하면서 다른 문제행동의 경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음주이다. 음주행위는 청소년들의 건강상 유해할 뿐 아니라 나아가 금기의식을 약화시켜 다른 비합법적 약물사용이나 비행으로 연결하는 통로역할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박경용, 2002).

우리나라에서는 알콜을 기호식품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알콜은 WHO에 의해 약물로 규정되었다. 알콜은 중추신경을 억제하여 뇌의 기능을 둔화시키며, 수면이

* Corresponding author: Ryu na-mi
Tel: 043) 277-6274, Fax: 043) 261-2794
E-mail: ryusoo75@hanmail.net

나 마취효과를 내는 중독성이 강한 습관성 식품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알콜을 경험할수록 여러 가지 질병발생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복합적 약물남용으로까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전재일, 유경숙,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음주가 날로 늘어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김광기(1996)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 절반 이상이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술을 마신 적이 있으며 초등학교 졸업 전에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청소년들 중 30%는 적어도 한달에 한번 이상 술을 마시며, 술을 마시는 청소년 중 절반 정도는 만취될 정도로 마시는 등 청소년들의 음주실태가 위험 수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의 음주행동은 발달론적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청소년기 음주행동은 성인의 음주행동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므로 청소년기에 술을 많이 마실수록 성인 된 이후에 음주문제를 겪게 될 위험이 높으며, 음주시작 연령이 빠를수록 이후에 음주문제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따라서 청소년기의 음주문제에 대한 개입은 성인 알콜중독을 예방하는 중요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 음주를 예방하기 위한 일차적 과제는 청소년 음주의 원인과 관련된 이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청소년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는 것인데, 지금까지 청소년 음주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주로 실태조사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1990년부터 보고되기 시작했다. 청소년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려는 국내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전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장승옥, 1997), 사회문화적 요인(이미형 등, 1999), 부모의 통제(김용석, 1999), 음주효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윤혜미 등, 1999), 또래동조 조성(김용석 등, 2000), 환경적 요인(박경용, 2002) 등을 청소년 음주의 설명변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개인요인, 가족요인, 또래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도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인요인인 음주기대, 가족요인인 부모감독, 그리고 또래요인으로 또래압력이 청소년 음주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청소년 음주 및 약물남용의 환경적 요인 중에서 가족(부모)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부모가 청소년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여러 연구들에서 실제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김용석(1999)은 부모의 통제가 청소년의 음주와 부적 선형관계가 있다고 보았으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통제 결여와 통제 혼란은 자녀의 문제행동, 음주 및 약물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류나미(2003)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들이 음주를 시작하는 연령이 빠르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은 부모의 규범과 태도를 직접적으로 내면화하기 때문에 청소년 음주에 부모의 영향력은 직접적이라는 보고도 있다(부정민, 1999). 즉 자녀의 생활에 대한 부적절한 통제,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파악결여, 자녀에 대한 지도와 규칙 적용에 있어서 일관성의 결여는 자녀의 문제행동과 음주 및 약물사용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청소년기 발달특성 상 또래압력은 청소년 음주에 중요한 예측변인이다. 청소년기는 친구들과의 또래집단을 형성하면서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므로, 자주 음주하는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음주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성기 등, 2001). 선행연구에서도 또래압력이 강해질수록 청소년들이 음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이연정, 2002), 약물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많을수록 청소년들은 약물에 많이 노출되고 또래관계 유지를 위해 약물사용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윤영수, 2004). 왜냐하면 거절할 경우에 발생할 또래로부터의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자존심 때문에 경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김성훈, 2000). 즉 청소년 개인의 음주행동과 그 친구들의 음주행동은 상당한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음주의 예측변인들을 밝히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러한 예언변인 중 음주에 대한 기대가 음주행동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고 이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긍정적 음주기대가 높을수록 음주의 소비수준이 높아지며, 반대로 부정적 음주기대가 높아질수록 음주의 소비수준이 낮아진다(Fiorentine & Hillhouse, 2000). 한국에서의 실증적인 조사연구(보건복지부, 2000)에서도 음주에 대한 기대와 음주는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박수연(2000), 김일한(2003)의 연구에서는 음주기대가 음주행위의 하위변수(음주량, 음주문제)와 유의미한 정적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즉, 음주기대가 높을수록 음주빈도와 양이 증가하며, 문제성 음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청소년기의 음주행동 및 음주 관련 문제들의 성에 따른 차이점의 강도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술을 많이 마시며, 자주 마시고, 알콜 관련 문제를 더욱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되어 왔으나(유정숙, 2003; Johnston, 1994), 최근에는 여자 청소년 음주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남자 청소년과의 편차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조성기 등, 2001; Johnston, O'Malley, & Bachman, 1999). 즉 여자 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의 음주율이 둘 다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초기 시작연령에 있어 여자 청소년이 1990년대 초부터 더 빨라지고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Amaro et al., 2001). 이

러한 청소년의 음주는 성인의 음주와는 다르게 알콜 중독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와 부작용이 치명적이고, 개인의 건강은 물론, 판단력을 상실한 채 비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로 확대된다(Johnston, O'Malley, & Bachman, 1998).

본 연구는 청주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2001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청소년의 음주실태를 조사하였다.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으로 음주에 대한 부모감독을, 또래요인으로 또래압력을, 그리고 음주기대를 개인적 요인으로 설정하여, 2001년에서 5년이 지난 2006년 청주지역 고등학생의 음주행동 변화 추이를 성에 따라 살펴보아 청소년 음주에 대한 예방적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연구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청주지역 청소년의 음주실태는 어떠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성에 따라 청소년 음주행동(음주량, 음주빈도, 문제성 음주)에 어떤 차이가 있으며 시간경과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는가?

연구문제 3. 인구사회학적 특성, 또래압력, 부모감독 및 음주기대가 청소년 음주행동(음주량, 음주빈도, 문제성 음주)에 대해 갖는 상대적 영향력은 각 연구시점에서 어떠한가?

Ⅱ. 선행연구

1. 청소년 음주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1) 성에 따른 청소년 음주행동

청소년기의 음주행위 및 음주 관련 문제들은 모든 인종 안에서 공통으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점의 강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다르다.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술을 많이 마시며, 자주 마시고, 알콜 관련 문제를 더욱 많이 경험한다고 한다(Hawkins et al., 1998). 유정숙(2003)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환경요인, 사회 환경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음주 경험이나 음주 문제에 있어서 남녀간의 성차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에서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청소년들에 비해 일관성 있게 술을 마시며 더 많은 음주 문제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Robins, 1992). 이러한 주장은 남자들이 알콜 중독이나 음주 문제를 유발시키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연구를 지지해준다(임경화, 1999). 그러나 최근에는 여자 청소년 음주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남성과의 편차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Johnston, O'Malley, & Bachman, 1999). 특히 Lewinsohn 등(1995)은 소녀들이 소년들보다 음주에서 심각한 문제를 보였으며, 약물사용이 이후에 중독을 예측하는 강력한 인자라고 하였으며 재발하기도 더 쉽다고 보고하였다. 음주실태를 연구한 김용순(2002)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만취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이 성에 따른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음으로 청소년들의 알콜과 같은 약물남용의 원인 및 예방을 위해서는 성이 청소년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

2) 부모감독과 청소년 음주행동

청소년기 부모 역할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 자녀가 어릴 경우에는 자녀와 부모간의 정서적 유대가 중요하나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자녀의 행동이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있어 부모의 통제가 점점 중요한 역할로 부각되며(김용석, 1999) 전통적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통제는 자녀의 문제행동이나 비행을 유발하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지도와 감독은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행동과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을 의미하는 monitoring, supervision, control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세우고 자녀가 규칙에 순응하는지를 감독하며, 자녀가 문제행동을 일으킬 경우 이에 대해 일관성 있는 훈육을 적용하는 등의 가족관리·통제기술을 이용하여 자녀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문제가 되는 자녀의 행동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Bahr et al., 1995).

선행연구들은 청소년들의 음주 등 약물사용행동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는데, Chilcoat 등(1996)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들이 약물을 시작하는 연령이 빠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Reifman 등(1998)이 실시한 종단연구에서도 부모의 통제는 자녀가 고 위험 음주자(1주일에 1회 이상 음주하는 청소년으로 정의하였음)가 되는 것과 폭음(한번에 5잔 이상 마시는 경우)을 자제시키고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용석과 박명숙(2000)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이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3) 또래압력과 청소년 음주행동

청소년 음주 및 약물남용의 환경적 요인 중에서 가족(부모)과 더불어 언급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또래의 영향이다. 청소년의 경우 점차 연령이 증가하면서 그들의 사회적 관계의 중심이 부모에서부터 친구와의 밀접한 관계로 변화되어 간다(신혜선, 2000; 조성기 등, 2001). 이 시기는 친구들과의 또래집단을 형성하면서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므로 친구가 매일 음주를 하는 경우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며, 자주 음주를 하는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음주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용석 등, 2001). 박수연(2000)의 연구결과에서도 환경적인 요인으로 부모의 영향보다는 친구의 영향이 청소년 음주에 더 깊이 관여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청소년기에는 동료집단이 매우 중요하므로 가치나 유행 등 동료문화에 일치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동료집단에 적응하려는 현상이 증가한다(조희, 2000, 표갑수, 2000).

신혜선(2000)은 청소년들의 음주를 포함한 약물사용에 관한 연구를 개관하면서 음주이유 중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이 또래집단의 약물사용에 대한 압력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처럼 음주에 대한 또래집단의 동조압력이 높은 것은 청소년들이 또래집단에 소속되기 위해서 또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사보다 친구의 권유나 친구의 무시를 더 염두에 두어 음주를 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청소년기의 특성 중 하나인 또래집단의 동조압력이 청소년 음주에 영향을 미치며, 문제성 음주로 발전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를 통해 볼 때, 또래는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즉 청소년들은 또래집단 안에서의 친밀감과 감정의 공유, 그리고 소속감에 이끌리어 음주에 빠져들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음주에 대한 정보와 관련 기술 및 비행도 학습하게 된다(김현익, 2000). 선행연구결과를 통해 서로 청소년기에 또래집단이 음주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매체로 이용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또래요인이 청소년 음주행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 음주기대와 청소년 음주행동

사람들은 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술을 마실 수 있고, 이런 기대는 술을 마시는 것 자체 뿐 아니라 음주 후의 행동 모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알콜효과에 대한 강한 기대가 청소년 문제음주에 선행하고 음주행동 발달의 중요한 원인적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Smith 등의 연구(1995)는 음주기대와 음주 문제 간의 관계가 여성보다 남성 사이에서 더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음주기대로 사회적, 신체적 이완은 모든 음주자들이 경험하는 사실이며 과음을 하는 사람들은 성적 행위와 공격적인 행위에 대한 기대도 높다는 사실도 발견되고 있다. 알콜기대이론은 알콜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음주행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즉 음주로 인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좀더 긍정적인 초기 음주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이 좀더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Smith & Goldman, 1998). 음주기대는 크게 긍정적 기대와 부정적 기대로 나뉘어지는데, 각 하위영역은 그 속성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가 있다. 긍정적 기대와 부정적 기대는 연령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지는데, 청소년음주에 있어서는 긍정적 기대가 부정적 기대에 비해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나이가 많은 집단에서는 긍정적 기대와 부정적 기대 모두가 영향을 미친다(Leigh & Stacy, 2004). 알콜효과에 대한 기대와 음주행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Smith & Goldman, 1998; Sprott, 1998)이 행해져 왔는데, 음주기대가 아동기에 발달하며(Miller et al., 1990), 청소년기의 음주에 관련될 것이라고(김용석 등, 2001)지적하고 있다. 또 아동기의 술에 대해 형성된 기대나 신념이 청소년 음주행동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관찰된다(김용석, 윤혜미, 2001; 류경희, 1998). 김용석과 윤혜미(2001)는 알콜의 효과에 대한 기대는 음주빈도, 음주량, 폭음 및 음주문제와 같은 모든 변인과 정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음주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술을 자주 그리고 많이 마시며 음주로 인한 문제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에서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음주행동과 관련성이 높다는 결과들이 일관적으로 지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기에 음주관련 기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이 미래의 음주행동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가지는 음주기대를 수정하여 음주행동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청소년 음주행동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청주지역이 고교평준화지역임을 고려하여 지역구별로 고등학교 2개교씩 임의로 선택하였으며, 5년의 시한을 두고 2001년과 2006년 1차, 2차 모두 동일한 고등학교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일한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1차는 2001년 6월 20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2006년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2차 조사를 완료하였다. 연구대상은 Kandel 등(1986)의 연구에서 18세의 청소년의 음주 위험률이 가장 높다고 보고된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일반적 연령대인 17-18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1, 2학년으로 선택하였다. 2001년의 경우 남자고등학생 152명, 여자고등학생 151명을 임의 표집하였고, 2006년에는 남자고등학생 149명, 여자고등학생 151명을 임의 표집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4개 고등학교는 학생구성이나 지역 등 조건이 평균적인 일반계 고등학교이며 조사대상도 음주문제가 있는 임상집단이 아니라 평균적인 한국의 일반 학교 청소년이라 할 수 있다. 자료 수집은 두 차례 모두(2001년, 2006년) 각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에게 조사의 의미와 지침사항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전달한 뒤,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이 설문에 응답하도록 한 후 수거하였다.

2. 측정도구

측정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는데, 그 구성내역은 인구사회학적 변인, 음주행동(음주량, 음주빈도, 문제성 음주), 또래압력, 부모감독 및 음주기대로 구성하였다.

음주행동은 음주빈도, 음주량, 문제성음주로 구성하였다. 음주량과 음주빈도는 WHO에서 제시한 음주량과 음주빈도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음주빈도는 지난 1년간의 음주빈도(1년 1회 이상-12회 미만, 한달 1회 이상-4회 미만, 일주일 1회 이상)로 측정하였으며, 음주량은 지난 한 달 동안 마신 술을 술의 종류에 상관없이 잔 수를 기입하도록 하여 총량을 합하여 한 달간 마신 알콜의 양을 측정하였다. 문제성 음주는 POSIT(Problem Oriented Screen Instrument for Teenagers)으로 측정하였다. POSIT의 총 139문항 중에서 청소년의 알콜 및 약물남용을 측정하는 문항은 17개이며 이를 Latimer 등(1997)이 11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POSIT은 '예', '아니오' 응답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예' 라고 응답한 경우 1점,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 0점이 주어진다. 총점 2점 이상이면 알콜남용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전문적인 진단이 요구되는 수준으로, Latimer 등(1997)에 의하면 POSIT 총점 2점을 사용하였을 때 약물남용청소년을 정확하게 선별하였고 POSIT과 DSM의 알콜사용장애 진단기준과의 높은 상관관계(r=.73)를 보여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본 연구는 김용석(1999)이 번역하여 연구에서 사용한 것을 채용하였다. 즉 총점이 2점 이상이면 음주로 인해 심한 신체적,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를 문제성 음주로 정의하며, 본 연구의 문제성 음주 신뢰도는 .99였다.

또래압력은 Santor(2000)는 청소년의 약물 사용과 관련된 또래 압력을 측정한 4문항을 조성기 등(2001)이 번안 사용한 측정도구 중 음주와 관련된 또래압력을 묻는 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또래압력의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압력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또래압력 신뢰도는 .85였다.

부모감독은 Patterson 등(1984)이 개발한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용돈사용, 방과후와 외출 시의 소재, 여가시간 동안의 행동에 대해 부모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의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3점 리커트 척도로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부모감독의 점수를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감독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부모감독 신뢰도는 .81였다.

음주기대는 Christiansen 등(1989)의 알콜 기대 설문-청소년 유형(AEQ-A)으로 측정하였다. 알콜 기대 설문-청소년 유형(AEQ-A)은 12세부터 19세의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척도로 90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윤혜미 등(1999)이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적합하다고 보이는 문항을 선별하고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사를 통해 긍정적 기대인 사교성 향상, 성적기능향상, 긴장감소, 부정적 기대인 공격성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한 1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음주기대 신뢰도는 .87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통한 통계처리방법으로 분석하였는데 조사대상자의 특징 및 음주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평균, 표준편차를 실시하였다. 성에 따른 청소년 음주행동(음주량, 음주빈도, 문제성 음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사용하였으며, 각 설문지의 신뢰도를 위해 Cronbach's α의 내적 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래압력, 부모감독, 음주기대

가 청소년음주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1].

Ⅳ.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2001년과 2006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2001년과 2006년 학년과 성의 경우 남학생은 50.2% : 49.7%, 여학생은 49.8% : 50.3%의 분포를 보였으며, 학년의 경우는 1학년 49.8% : 50.0%, 2학년 50.2% : 50.0%로 비슷한 비율로 분포하였다. 종교의 경우 2001년과 2006년 2차례 모두 무종교가 가장 많았으며, 거주형태의 경우는 2001년과 2006년의 경우 모두 부모와 함께 사는 청소년들이 90%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2. 청주지역 청소년의 음주실태

조사대상자의 음주행동에 관한 사항으로 음주경험 유무, 지난 1학기 동안 술 마신 시기, 지난 한달 동안 마신 술의 양을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음주경험의 유무를 2001년과 2006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2001년의 경우 음주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75.9%인데 반하여, 2006년에는 91.3%로 5년 사이에 청소년의 음주를 경험한 학생의 비율이 15%나 증가하였다. 즉 고등학생 10명 중 9명은 음주경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음주빈도는 2001년과 2006년을 비교했을 때, 1년에 1회 이상-12회 미만의 경우 2006년에 8.6% 증가하였으며, 일주일 1회 이상은 4.0% 증가하였다. 즉 2001년에 비해 시험적 수준의 음주청소년이 더 늘었지만 매주 1회 이상 술을 마시는 정기적 음주자의 비율도 늘어 청소년 음주행동이 양극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음주량은 지난 한달 간 청소년이 마신 술의 양으로, 2001년에는 평균 24.97잔이었던 것이 2006년의 경우 40.82잔을 증가하였다. 이는 WHO가 규정한 폭음의 정의에 속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폭음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한달 간 청소년이 많이 마신 술의 종류를 비교해보면, 2001년의 경우에는 소주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마셨으나, 2006년에는 폭탄주와 같은 기타 술을 마셨으며, 그 다음으로 소주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음주의 주종이 알콜 함량이 높은 독주 쪽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2001년	2006년
	구분	구분	빈도(%)
성	남	152 (50.2)	149 (49.7)
	여	151 (49.8)	151 (50.3)
	합계	303(100.0)	300(100.0)
학년	1학년	151 (49.8)	150 (50.0)
	2학년	152 (50.2)	150 (50.0)
	합계	303(100.0)	300(100.0)
종교	불교	45 (14.9)	78 (26.1)
	기독교	78 (25.7)	69 (23.1)
	천주교	28 (9.2)	29 (9.7)
	기타	3 (1.0)	8 (2.7)
	없음	149 (49.2)	115 (38.5)
	합계	303(100.0)	299(100.0)
거주형태	부모와 함께	291 (96.0)	267 (90.2)
	하숙	1 (0.3)	6 (2.0)
	자취	7 (2.3)	12 (4.1)
	기타	4 (1.3)	11 (3.7)
	합계	303(100.0)	296(100.0)

1) 음주량은 잔수로 자료가 측정되었으므로 연속변수로 보았고 음주빈도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등간이 아니므로 연속변수로 보기 어려우나 횟수가 서로 배타적이면서 연결되어 있어 서열변수로 취급하였다. 기존의 연구 조성기외(2001)도 음주량과 음주빈도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분석하고 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음주행동

변수	구분	2001년(%)	2006년(%)
음주경험 유무	있다	230 (75.9)	274 (91.3)
	없다	73 (24.1)	26 (8.7)
	합계	303(100.0)	300(100.0)
음주 빈도 (지난 한해)	일주일 1회 이상	22 (8.4)	31 (11.4)
	한달 1회 이상-4회 미만	64 (28.0)	45 (16.5)
	1년에 1회 이상-12회 미만	145 (63.6)	197 (72.2)
	합계	228(100.0)	273(100.0)
음주량	지난 한달 동안 마신 양(잔수)	24.97	48.82
문제성음주	구분	*M(SD)*	*M(SD)*
	총점 2점 이상	75 (32.6)	106 (38.86)
	총점 2점 미만	155 (67.3)	168 (61.14)
	합계	230(100.0)	274(100.0)

으로 선회하고 있고 성인들의 음주 관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비율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문제성음주는 총점 2점 이상이면 알콜남용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전문적인 진단이 요구되는 수준을 말하는데, 총점이 2점 이상인 학생이 2001년에는 32.6%였으나, 2006년에는 38.86%로 증가하였다. 즉 2001년에 비해 2006년에는 청소년 즉 음주자 비율도 늘고, 정기적 음주자가 증가했으며 음주량과 문제성 음주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할 만하다.

3. 성에 따른 청소년 음주행동

조사대상자 중 "술을 마신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2001년의 230명과 2006년의 274명을 대상으로 성에 따른 청소년 음주행동(음주량, 음주빈도, 문제성 음주)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단, 청소년 음주행동 중 문제성음주는 문제성음주 총점이 2.0이상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는데 2001년의 75명, 2006년의 106명을 조사 분석하였다. 성에 따른 또래압력, 부모감독, 음주기대 및 청소년 음주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성에 따른 청소년의 음주량은 2001년(t=3.61, p<.01)과 2006년(t=3.31, p<.01)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임경화(1999)와 일치하였으며, 이는 남학생들 음주문제 유발이나 알콜 중독율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에 따른 청소년의 음주빈도는 2001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남학생의 음주빈도가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남자 고등학생이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는 비율이 여학생보다 월등히 높다고 보고한 소경애(1992)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반면에 2006년 청소년의 음주빈도(t=-3.01, p<.01)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음주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는데, 2004년 2월 통계청 발표(2003)에서 여성의 음주율이 1999년 43.9%에 비해 2003년 57.7%로 13.8%나 증가했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연도별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남학생과 여학생은 2001년과 2006년에 음주량, 음주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남학생의 경우 2001년 조사대상 남자청소년에 비해 2006년 조사대상 남자청소년의 음주량(t=2.04, p<.05)과 음주빈도(t=1.18, p<.05)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음주량과 음주빈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 음주는 개인적으로나 사회

〈표 3〉 성에 따른 청소년 음주행동

종속변수		성	2001년			2006년		
			N	M(SD)	t	N	M(SD)	t
음주 행동	음주량	남	100	16.22 (29.96)	3.61**	134	28.46 (58.90)	3.31**
		여	82	8.75 (22.82)		140	12.36 (16.26)	
	음주빈도	남	119	.91 (.28)	.96	134	1.38 (.79)	-3.01**
		여	110	.82 (.38)		139	1.61 (.51)	
	문제성음주	남	32	1.15 (2.03)	1.82*	48	1.77 (2.31)	.33
		여	43	1.39 (1.39)		58	1.60 (2.82)	

**p<.01, *p<.05

〈표 4〉 연도별 음주행동 차이

종속변수		연도	남학생			여학생		
			N	M(SD)	t	N	M(SD)	t
음주행동	음주량	2001년	100	16.22 (29.96)	2.04*	82	8.75 (22.82)	1.93*
		2006년	134	28.46 (58.90)		140	12.36 (16.26)	
	음주빈도	2001년	119	.91 (.28)	1.81*	110	.82 (.38)	2.72**
		2006년	134	1.38 (.79)		139	1.61 (.51)	
	문제성음주	2001년	32	1.15 (2.03)	.51	43	1.39 (1.39)	1.95*
		2006년	48	1.77 (2.31)		58	1.60 (2.82)	

**p<.01, *p<.05.

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따르며, 판단력이나 이성을 흐려 예상치 못했던 행동을 하게 만들고, 친구간의 불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습관성 음주로 진전할 수 있음을 시사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2001년 조사대상 여자청소년과 2006년의 조사대상 여자청소년은 음주량(t=1.93, p<.05), 음주빈도(t=2.72, p<.01), 문제성음주(t=1.95,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여자 청소년 음주의 심각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즉 해를 거듭할수록 여학생의 음주행동이 심화되는 것으로 여학생을 위한 음주예방 및 프로그램의 실시가 절실히 요구된다.

4. 인구사회학적 배경, 또래압력, 부모감독 및 음주기대가 청소년 음주행동(음주량, 음주빈도, 문제성음주)에 미치는 영향

인구사회학적 배경, 또래압력, 부모감독 및 음주기대가 청소년 음주행동(음주량, 음주빈도, 문제성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우선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각 변인들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는 2001년의 경우 .15에서 .52 사이에서 분포하였으며, VIF값은 음주량, 음주빈도, 문제성 음주에서 각각 1.029-1.351, 1.78-1.412, 1.069-1.422값으로 나타나 다중

〈표 5〉 성, 또래압력, 부모감독 및 음주기대와 청소년 음주행동 간의 상관관계

		음주량	음주빈도	문제성음주	성별	또래압력	부모감독	사교성	성적	공격성	긴장감소
2001년	음주량										
	음주빈도	-.52**									
	문제성	.25**	-.51**								
	성별	-.17*	-.17**	.10							
	또래압력	.06	.26**	.38**	.01						
	부모감독	-.21**	-.33**	-.27**	.12*	-.32**					
	사교성	.21**	-.30**	.01	-.09	-.36**	.19**				
	성적	.28**	.26**	.06	-.01	-.22**	.12*	.38**			
	공격성	.08	-.04	.08	-.18**	-.13*	.02	.29**	.30**		
	긴장감소	-.10	.12	.08	-.11	-.15**	.08	.24**	.17**	.44**	
평균		24.78	7.54	.79	.50	2.36	2.21	1.44	1.83	1.63	1.58
표준편차		25.81	1.72	.89	.50	.96	.49	.35	.27	.27	.44
2006년	음주량										
	음주빈도	-.03									
	문제성	.59**	-.08								
	성별	-.12*	.17**	.05							
	또래압력	-.11	.07	.36**	.04						
	부모감독	-.15**	-.12*	-.39**	-.04	-.24**					
	사교성	.06	.06	-.46**	.49**	-.01	.17**				
	성적	.22**	.00	.32**	.56**	-.00	.10	.69**			
	공격성	.20**	-.01	.28**	.53**	-.03	.15**	.65**	.65**		
	긴장감소	-.13*	.00	.32**	.45**	-.04	.16**	.64**	.55**	.50**	
평균		48.82	1.49	1.80	1.50	2.47	1.99	1.05	1.08	1.07	1.07
표준편차		45.61	.68	2.64	.50	1.01	.55	.52	.77	.61	.71

*p<.01, *p<.05, *dummy성은 남성이 기준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 조사의 경우 상관관계 값은 .12에서 .69사이에 분포하였으며, VIF값은 각각 1.068-4.897, 1.056-4.852 ,1.091-3.341값을 가지고 있어 각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보이지 않았다.

1) 또래압력, 부모감독 및 음주기대가 청소년 음주량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또래압력, 부모감독, 음주기대가 청소년 음주량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6>과 같다.

2001년의 청소년 음주량을 보면 부모감독, 음주기대 중 사교성 향상과 성(性)적기능향상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들은 청소년 음주량을 10.1%로 설명해 주고 있다. 즉 부모감독이 낮으며, 음주기대 중 사교성향상과 성(性)적 기능향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높을 때, 청소년 음주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성(性)적 기능향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6년의 결과를 보면 음주기대 중 성(性)과 성(性)적 기능향상에 대한 기대가 청소년 음주량에 영향을 미쳐 12.8%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2001년에 이어 2006년에도 청소년 음주량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신념인 음주기대 중 성(性)적 기능향상이 관찰된다. 또 2001년과 달리 2006년에 와서 성(性)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청소년의 음주량이 여자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나, 문영실(200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2) 또래압력, 부모감독 및 음주기대가 청소년 음주빈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또래압력, 부모감독, 음주기대가 청소년 음주빈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표 7>과 같다. 2001년의 청소년 음주빈도를 보면 또래압력, 음주기대 중 공격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들은 청소년 음주빈도를 6.5%를 설명해 주고 있다. 즉 또래압력을 많이 받거나 음주가 공격성을 증가시킨다고 별로 기대하지 않을 때

〈표 6〉 또래압력, 부모감독 및 음주기대와 청소년 음주량

종속변인	독립변인		2001년			2006년		
			표준화된B	표준화된β	t	표준화된B	표준화된β	t
음주량	성*		-3.18	-.06	-.90	-.18.01	-.19	-2.74**
	또래압력		1.79	.07	1.22	-6.20	-.13	-1.59
	부모감독		-6.78	-.14	-2.47*	-12.55	-.13	-1.74
	음주기대	사교성향상	16.86	.34	3.48**	20.65	.15	1.85
		성(性)적기능향상	15.82	.47	4.56***	33.63	.21	2.63**
		공격성	-3.74	-.07	-1.06	-15.94	-.07	-.89
		긴장감소	.00	.00	.02	2.33	.02	.29
R^2			.122			.162		
adj-R^2			.101			.128		
F			5.80***			4.78***		

***p<.001, **p<.01, *p<.05, *dummy(성; 남성이 기준)

〈표 7〉 또래압력, 부모감독 및 음주기대와 청소년 음주빈도

종속변인	독립변인		2001년			2006년		
			표준화된B	표준화된β	t	표준화된B	표준화된β	t
음주빈도	성*		.00	.06	.89	.27	.15	2.34*
	또래압력		.09	.19	3.21**	.00	.02	.31
	부모감독		-.09	-.01	-.17	-.13	-.19	-2.93**
	음주기대	사교성향상	-.10	-.10	-1.08	.12	.12	1.65
		성적기능향상	.12	.19	1.82	.10	.08	1.17
		공격성	-.29	-.29	-4.29***	-.12	-.07	-1.01
		긴장감소	.06	.09	.96	.02	.03	.50
R^2			.087			.132		
adj-R^2			.065			.104		
F			3.98***			4.81***		

***p<.001, **p<.01, *p<.05, *dummy(성; 남성이 기준)

청소년의 음주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의 결과를 보면 성(性)과 부모감독이 청소년 음주빈도의 10.4% 설명해 주고 있다. 2001년과 2006년을 비교해보면, 2001년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개인적 신념인 공격성이 청소년 음주빈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으며 또래압력도 영향을 미쳤으나, 2006년에는 2001년과 달리 성(性)이 영향을 미쳤다. 음주빈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2001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음주빈도가 잦았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는데, 최근 여자 청소년 음주자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보고한 Jojnston 등(1999)의 연구를 지지해준다. 또한 2006년은 개인적 신념보다는 부모감독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부모감독과 음주행동 간에 일관성 있는 유의미한 관계를 밝힌 조성기 등(2001)의 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부모감독이 낮을수록 음주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부모감독을 통해 자녀의 음주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3) 또래압력, 부모감독 및 음주기대가 청소년 문제성음주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래압력, 부모감독, 음주기대가 청소년 문제성 음주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종속변인인 청소년 문제성음주가 이분범주변인이므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선택방법은 전진단계선택:조건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청소년의 또래압력, 부모감독 및 음주기대가 청소년 문제성음주에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2001년에는 또래압력, 부모감독, 음주기대 중 긴장감소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다른 변수의 값을 일정하게 놓고 청소년의 또래압력이 1단위 증가하면, 문제성음주자가 될 확률은 문제성음주자가 되지 않을 확률보다 1.825배 증가하며, 부모감독이 1단위 증가하면 문제성음주자가 되지 않을 확률은 문제성음주자가 될 확률보다 0.259배 증가한다. 그리고 음주기대 중 긴장감소가 1단위 증가하면, 문제성음주자가 될 확률은 되지 않을 확률보다 0.522배 증가한다. 즉 2001년도 청소년 문제성음주는 또래압력의 영향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긴장감소에 대한 본인의 음주기대였으며 부모감독은 유의하되 문제성음주에 대한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2006년을 보면, 부모감독, 음주기대 중 사교성 향상, 긴장감소 대한 긍정적 기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즉 다른 변수의 값을 일정하게 놓고 부모감독이 1단위 증가하면, 문제성 음주자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0.379배 증가하며, 음주기대 중 사교성향상이 1단위 증가하면, 0.088배 증가하며, 문제성 음주는 0.306배 증가하는 것이다. 즉 부모감독이 증가하고 술을 마시면 사교성이 증가되고 긴장이 감소되리라는 기대가 증가할수록 문제음주 발생 확률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2001년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2001년 청소년 음주의 중요한 영향력이었던 또래압력이 2006년에는 청소년 음주에 대한 유의성을 상실하였고 대신 긴장감소와 사교성향상에 대한 음주기대가 그 영향력의 크기는 작지만 유의하게 나타났고 부모감독은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표 8〉 또래압력, 부모감독 및 음주기대와 청소년 문제성음주

종속변인	독립변인		2001년						2006년					
			B	S.E.	Wald	자유도	유의확률	OR	B	S.E.	Wald	자유도	유의확률	OR
문제성음주	성		.247	.340	.528	1	.467	1.281	.447	.346	1.671	1	.196	1.563
	또래압력		.59	.14	16.28	1	.000	1.825	.29	.19	2.12	1	.145	1.337
	부모감독		-1.35	.27	23.35	1	.000	.259	-.97	.38	6.20	1	.013	.379
	음주기대	사교성향상	.47	.47	1.01	1	.313	1.610	-2.43	.63	14.54	1	.000	.088
		성(性)적기능향상	.12	.32	.14	1	.704	.883	.65	.61	1.12	1	.289	.522
		공격성증가	.56	.33	2.84	1	.092	1.760	.96	.90	1.13	1	.289	2.626
		긴장감소	.65	.32	3.98	1	.046	.522	1.18	.40	8.55	1	.003	.306
			X^2=2.950, 유의수준.005, Cox와 Snell의 R-제곱=.214, Nagelkere R-제곱=.294						X^2=4.447, 유의수준.005, Cox와 Snell의 R-제곱=.292, Nagelkere R-제곱=.408					

***p<.001, **p<.01, *p<.05, *dummy(성; 남성이 기준)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주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2001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실태와 또래압력과 부모감독, 음주기대와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여 청주지역 고등학생의 음주행동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음주실태는 5년 전보다 훨씬 심각해졌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음주 경험자가 75.9%인데 반하여, 2006년에는 91.3%로 늘어 15.4%가 증가를 보였다. 이는 10명중 9명이 음주를 경험한 것으로 청소년의 음주율을 82.9%로 보고한 청소년보호위원회(2001)의 연구결과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 청소년 음주에 대한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의 경각심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만 19세 미만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않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지역 고등학생의 음주행동은 음주자 비율, 음주빈도와 음주량 모두에서 2001년에 비해 2006년 유의한 증가세를 보여 청소년 음주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청소년의 음주행동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음주를 하는 수준을 넘어서 습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문제행동을 보이고 있는 비행청소년이나 알콜 중독이나 약물중독에 개입된 일부 청소년이 아니라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음주 예방 프로그램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성에 따른 청소년의 음주빈도는 2001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2006년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음주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여학생의 음주빈도가 남학생보다 음주빈도보다 높다고 보고한 김용순(2002)의 연구와 일치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여학생의 음주율이 남학생보다 증가함으로 음주행위 영향요인에 따른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예방교육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또래압력, 부모감독 및 음주기대가 우선 음주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2001년에는 청소년 음주량을 보면 부모감독, 음주기대 중 사교성 향상과 성(性)적기능향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높을 때 청소년 음주량이 증가하였으나, 2006년의 결과를 보면 성(性)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음주량이 여학생보다 음주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만취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한 문영실(2003)의 연구와도 일치하였으나, 여학생의 음주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6년 자료에서 음주량에 영향을 주는 하위변수에서는 성(性)적 기능향상에 대한 긍정적 기대, 한 가지로 수렴되고 있다. 즉 청소년 음주량의 문제는 외부로부터의 강요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대중매체 광고나 성인들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음주에 대한 스스로의 긍정적인 기대를 교정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다행히도 음주기대는 교육이나 훈련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수정 가능한 변인이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입 프로그램을 통해 알콜의 부정적 영향을 정확히 알려주는 구체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알콜은 성적충동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대뇌중추신경계를 혼란시켜 성적기능을 오히려 저하시킨다는 사실이나 술이 사교성을 높여 주는 것처럼 보이나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제어능력이 일시적으로 손상되면서 오히려 실수를 하게 하여 다툼이 더 많아진다는 결과들을 알려주어 알콜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음주기대가 형성되는 과정과 술이 실제 약리적 효과보다는 술에 대한 기대가 그러한 효과를 느끼게 한다는 것을 교육시켜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음주 기대가 형성되기 이전이나 형성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음주빈도에 미치는 결과는 2001년에도 부모감독, 음주기대 중 공격성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높을 때 청소년 음주빈도가 증가하였으나, 2006년의 결과에서는 성(性)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음주빈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적 신념보다 외부요인인 부모감독이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즉 음주빈도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것은 부모감독으로 부모감독이 낮다고 인식할 때 음주가 잦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일관성있는 생활감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감독과 음주행동간에 일관성 있는 유의미한 관계를 밝힌 조성기 등(2001)의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제성음주에 관해 분석한 결과, 2001년에는 또래압력이 높고, 부모감독이 낮으며, 음주기대 중 긴장감소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커질수록 문제성음주의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6년에는 2001년과 마찬가지로 부모감독이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또래압력의 효과가 사라지고 음주기대 중 사교성 향상, 긴장감소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청소년의 문제성음주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1년의 경우에는 또래압력의 영향이라는 발달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으나 2006년도에는 음주기대의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나 문제성음주에 대한 개인적 신념의 영향력 증가를 보여준다. 음주량에서는 공격성이나 성적기능향상처럼 보다 특정한 목적이 있는 음주기대의 영향력이 엿보이나 문제성음주에서는 사교성향상이나 긴장감소 등 보다 일상적인 기대가 더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문제성음주 청소년들의 음주행동이 보편화되고 일

상적인 동기에서 비롯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청소년의 음주행동과 문제성 음주청소년의 음주행동에 대한 예방적 접근은 이런 차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공통적으로 나타난 부모감독의 영향력을 볼 때,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세심함 배려와 생활감독 등 부모교육도 청소년 음주행동 교정에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 문제성음주는 신체적,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일반 청소년 기준과 비교하여 볼 때 다양한 정신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문제성 음주에 효과적인 개입의 방향이 내부요인에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개인적 음주기대 중 긴장감소, 사교성향상과 같은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의 교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안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주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을 조사대상으로 제한하여서 결과에 대한 해석과 일반화에 제한점을 지닌다. 추후 연구에서는 초 중학생들과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 문화적 환경이 상당히 다르므로 집단 간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청소년들의 음주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음주행동을 지속시키는 요인뿐만 아니라 문제성 음주를 저하시키는 보호요인의 규명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음주 문제 개입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또래압력, 부모감독, 음주기대, 청소년 음주행동

참 고 문 헌

김광기(1996). 음주양태 및 음주관련문제에 대한 공중보건학적 연구. 대한보건협회지.

김성훈(2000). 청소년의 또래수용유형과 촉진적 의사소통능력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용석(1999).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와 청소년 음주와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39, 103-127.

김용석, 박명숙(2000). 청소년 문제행동의 공통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청소년 음주와 비행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2, 83-106.

김용석, 윤혜미(2001). 중학생들의 음주기대와 음주기대 관련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44, 91-116.

김용순(2002). 청소년 음주행위와 관련 요인 분석.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일한(2003). 청소년의 음주실태와 음주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221-251.

김현익(2000). 청소년비행의 가정환경적 요인과 그 예방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경희(1998). 가족력, 대처방식, 음주기대 및 동기가 청소년 음주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나미(2003). 또래압력, 부모감독 및 음주기대와 청소년 음주.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영실(2003). 청소년 음주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경상남도 진주시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경용(2002). 청소년 음주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수연(2000). 청소년 음주행위와 관련된 변인분석-강릉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2000). 청소년의 음주 및 약물남용실태와 관련요인 분석.

부정민(1999). 사회적 요인이 청소년의 음주·흡연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혜선(2000). 부모·친구 요인이 청소년의 음주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정숙(2003). 청소년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과 사회복지서비스 방안.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영수(2004). 청소년의 음주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전북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윤혜미, 김용석, 장승옥(1999).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와 한국 고등학생들의 음주행위 간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38, 153-179.

이미형, 이영자, 정혜선(1999). 대학생의 알콜성장애 정도와 정신건강, 정신간호학회지, 8(1). 97-107.

이연정(2002). 가정환경 및 또래집단이 중학생 음주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인정, 최혜경(1995).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나남출판사.

임경화(1999). 대학생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주는 심리사회적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승옥(1997). 대학생들의 음주행위와 음주규범. 한국사회복지학, 31, 423-440.

전재일, 유경숙(2004). 청소년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사회복지개발연구, 10(2), 162.

조성기, 김용석, 김정우, 김성천, 제갈정(2001). 초등학생과 청소년의 음주실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조희(2000). 한국대학생의 음주행위 예측모형 구축.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청소년보호위원회(2001). 청소년유해물 유해표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표갑수(2000).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출판사.

Amaro. H., Blake, SM., Schwartz, P., & Flinchbaugh, LJ(2001). Developing Theory-Based Substance

Abuse Prevention Programs for Young Adolescent Girl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1*(3), 256-293.

Bahr, SJ., Marcos A.C. & Maughan, SL(1995). Family, Educational and Peer Influences on the Alcohol Use of Female and Male Adolescen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6,* 457-469.

Chilcoat, HD, & Anthony, JC(1996). Impact of Parent Monitoring on Initation of Drugs Use through Late Childhoo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5*(1), 91-101.

Christiansen, BA., & Goldman, M.S(1983). Alcohol-Related Expectancies versus Demographic, Background Variables in the Prediction of adolescent Drink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20), 49-257.

Fiorntine, R & Hillhouse, M(2000). Self-Efficacy, Expectancise, and Abstinene Acceptance: Further Evidence for the Addicted-Self Model of Cession of Alchol-and Drug Dependent Behavior. AM. J., *Drug Alcohol Abuse. 26(4).* 497-521.

Hawkins, JD., Graham, JW., Abbott, R., Hill, KG., & Catalano, R. F(1998). Exploring the Effects of Age of Alcohol Use Initiation and Psychosocial Risk Factors on Subsequent Alcohol Misus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8,* 280-290.

Johnstone, BM(1994). Sociodemographic, Environmental and Cultural Influences on Adolescent Drinking Behaviors. In Zucker, R. G., Boyd & J. Howard(eds). The Development of Alcohol Problems: Exploring the Biopsychosocial Matrix of Risk. National Institutes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Research Monograph-26, Rockville, MD;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Johnston, L., O'Malley, PM., & Bachman JG.(1998). The national survey results on drug use from the monitoring the future study, 1975-1997. Rockville, MD :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_____(1999). The national survey results on drug use from the monitoring the future study, 1975-1998. Rockville, MD :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Kandel, DB(1980). Drug and Drinking Behavior among Youth. *Annual Review of Sociology, 6,* 235-285.

_____, Davies, M, Karus, D., & Yamaguchi, K(1986). Cosequences in young adulthood of adolescent drug involvement.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3(8), 746-754.

Latimer, WW., Winters KC., & Stinchfield, RD(1997). Screening for drug abuse among adolescents in clinical and correctional settings using the Problem-Oriented Screening Instrumentation for Teenagers. *American Journal of drug and Alcohol Abuse, 23*(1), 79-98.

Leigh, BC., & Stacy, AW(2004). Alcohol expectancies and drinking in different age groups. *Addiction, 99*(2), 215-227.

Lewinsohn PM, Gotlib IH & Seely JR(1995). Specificity of psychosocial risk factors for depression and substance abuse in older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4*(9), 1221-1229.

Miller, PM., Smith GT., & Goldman, MS(1990). Emergencies of Alcohol Expectancies in Childhood: A Possible Critical Period.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1,* 343-349.

Reifman, A., Barnes, GM., Dintcheff, BA., Farrell, MP., & Uhteg, L(1998). Parental and Peer Influences on the Onset of Heavier Drinking among Adolescent.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9*(3), 311-317.

Robins, LN. (1992). Synthesis and Analysis of Longitudinal Research on Substance Abuse, 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 Princeton, N. J., unpublished report.

Santor, DA, Messervey, D., & Kusumakar, V(2000). Measuring Peer Pressure, Popularity, and Comformity in Adolescent Boys and Girl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2), 163-177.

Smith, GT., & Goldman MS(1995). Alcohol expectancy theory and the identification of high-risk adolescents, in G. M. Boyd, et al.(eds). Alcohol Problems among Adolescents, Erlbaum Associates, Inc, 85-104.

_____, Miller, TL., Kroll, L. simmons, JR., & Gallen, R(1998). Children's perceptions of Parental Drinking: The Eye of the Beholder.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0,* 817-824.

Sprott, MD(1998). Behavior and Environmental Sources of Motivation: Bridiging a Gap. Uni. of Nebraska Press, 235-260.

(2006. 06. 19 접수; 2006. 11. 02 채택)